

CAMP 아시아빈곤 선교센터 NEWSLETTER



2023년 겨울호
Vol. 50



이철용 목사의 자립선교 이야기

선교현장에서 탄소중립 농업을 실천하는 캠프

이철용 목사 (사단법인 캠프 대표)



아시아빈곤선교센터 사단법인 캠프는 필리핀의 도시빈민 이주민 지역에서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교육,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 등 삶과 연관된 전문야의 변화를 위해 사역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필리핀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기도하던 와중에 한국의 보나양계 기술을 도입해 필리핀에서 성공적으로 자립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

신 은혜로 자연양계는 확장되었고 이주민지역에서는 공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협력기관인 필리핀연합교회(UCCP) 마닐라북노회의 추천으로 딸락에 농지를 마련하고 자연양계와 함께 농업활동을 진행하고 이러한 사역에 지역교회가 참여하고 교인들의 소득향상을 통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선교현장에서
탄소중립 농업을
실천하는 캠프
”

최근들어 농촌환경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비가 제때 내리지 않고 가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지 다바오의 두리안 생산농가들은 꽃이 피는 시기는 물론이고 폭우로 인해 과실들이 익기도 전에 썩어가는 등 질병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태 이후 기름값 급등은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비료가격 인상으로 결국 농업을 포기하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캠프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락 자립선교센터에 캠프지속가능발전센터를 설립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캠프도 딸락에

서 친환경농업을 통해 매탄과 아산화질소 배출을 억제하고, 물공급과 가공시설에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해결하는 등 탄소중립 농업을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뉴스레터에서는 캠프가 시도하고 있는 탄소중립 농업 사례를 한국교회와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